

교제와 나눔

** 선교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 자매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 제직회: 예배 및 애찬 후 Teestube 믿음방
- 뒤메나라 모임: 6월 8일(목) 19시 온라인
- 연합 어린이여름성경학교: 6월 22일~24일 (3차 준비모임-6월 20일)
- 지난 주 방문: 윤영숙, 김원아
- 한국방문: 오경민(6월 10일 결혼), 이선영
- 병상: 강판연
- 생일: 오지훈, 백지원

** 함께 기도합시다 **

- 1)정성 다해 예배드리게 하소서.
- 2)힘써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 3)일상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 4)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소서.
- 5)지진으로 폐허가 된 땅과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 말씀일기 일정

일/롬5:1-11 월/롬5:12-21 화/롬6:1-14 수/롬6:15-23
 목/롬7:1-13 금/롬7:14-25 토/롬8:1-17 일/롬8:18-30

- ◆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300독 대행진: 208독

◆ 예배위원 안내 ◆

	6월 4일	6월 11일	6월 18일	6월 25일
예배기도	강일구	구봉환	오지훈	오수형
안내위원	예배부			
헌금위원	오지훈, 백수정			
예찬위원	밥상 셋	밥상 넷	밥상 다섯	밥상 여섯

40-23호

2023년 6월 4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시편 98:1)



주일예배 14:00 Mutterhauskirche
 유초등부 14:00 Teestube 평화방
 청소년부 14:00 Teestube 믿음방
 청년부 모임 15시 30분 Teestube 믿음방

토요기도회: 07:00 Teestube 믿음방
 선교성경아카데미(MBA): 누구든 어디서나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이동훈 목사 HP. 01525-2367 629
 교육/ 박승은 목사 HP. 0157-3845 5550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 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당 주소 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입례송/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 께
※예배부름/Eingangsgebet		인 도 자
※찬송/Gemeindelied	12장 1절	다 함 께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다 함 께
성서교독/Wechselwort	교독문137번	다 함 께
찬송/Gemeindelied	397장	다 함 께
기도/Gebet		강일구 안수집사
찬양/Chor	가난한 자 돌봐주며	찬 양 대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창세기 29:1-30	인 도 자
설교/Predigt	변화	손교훈 목사
찬송/Gemeindelied.....	338장	다 함 께
봉헌/Kollekte.....		다 함 께
교제/Bekanntmachung.....		다 함 께
※주기도송/Vaterunser.....		다 함 께
※축도/Segen		손교훈 목사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례3장 '3가지 안타까움' ◀

로마서 3장을 읽으면서 드는 안타까움 3가지.

첫째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값비싼 은혜'가 너무 '값싼 은혜'로 변질돼 버린 한국 교회 현실이다. 본 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믿음으로, 믿음으로'를 외쳐서는 곤란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30, 31) 라고 하는 구원의 도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 때문(22)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구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거나 모독하는 길로 나갈 수도 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자칫 변형된 인본주의가 될 수도 있다.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의'와 함께 붙어 다녀야 한다.

둘째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2)은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개운칠 않다. 수 많은 설교가 있고, 성경공부 교재들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과연 얼마나 복음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의에 기반한 것인가, 솔직히 의문이다.

한국 교회든,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든 하나님은 우리 한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변변히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걸 길로 새고 있다면 큰 일 아닌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무 것도 나은 게 없다. 동일하게 죄 아래 있다(9).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적 존재이다. 말씀 그대로 사는 것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말씀을 제 멋대로 왜곡하는 어리석음과 오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셋째는, 개역개정 성경의 문장이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성경 본문을 본래 뜻대로 읽어낼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하니 답답하다. '현대어성경'으로 읽으니 뜻이 분명하고, '쉬운 성경'으로 읽어 보니 그야말로 쉬운데....